

임신에서 출산·돌봄까지... 육아 지원 정책 추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저출산 극복 정책 확대

익산시가 올해도 임신에서 출산, 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로부터 보육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명실상부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 규모 임신·출산 지원...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익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한다.

우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남성까지 확대한다. 기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30명에서 남성 30명까지 확대됨으로써 치료 순응도 향상과 함께 임신 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임신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1회당 건강관리비를 당초 2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시키기 위해 첫째아 100만원부터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의회와 조례 개정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가정에 최대 1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미혼모, 분만 취약지, 새터민,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등까지 확대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지원 이용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고 시는 의회와 협의 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이용 아동에 대해 50~70%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아간·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포함)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6년 아간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이어 2017년 토요일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에 선정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한곳에서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9만1,000명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센터는 맞벌이와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간과 토요일을 포함해 일요일, 법정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돌봄 시스템 구축·사각지대 없앤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별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형 돌봄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교과 학습지도, 독서, 미술 등을 함께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을 추가로 마련해 총 7곳으로 확충한다.

센터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돌봄과 교과 학습지도, 독서와 미술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도 맞춤형 돌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돌봄공동체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12세 이하 자녀를 함께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황등과 모현동 등 2곳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2곳을 추가해 4개소로 확충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남부시장과 오산면 2곳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까지 1곳을 추가 설치해 3개소로 확충한다. 시는 순차적으로 돌봄센터를 확대하여 연령별 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임신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 콜택시'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임산부나 영유아 보호자가 병원진료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행 2주만에 이용자가 70명에 달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문화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난임 가정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남성까지 확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 위해 임신 1회당 건강관리비 40만원으로 상향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다자녀 부모 양육부담 덜기 위해 법정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살명설 초교의 선물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진안고원에서 정성어린 손길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 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의
농·특산물을 선물하세요.

www.jinanshop.com

진안로컬푸드

<p>진안사과 선물세트 부사 10 - 16개 : ₩4시중가</p>	<p>진안고원 홍삼한우 등심세트 1+ 이상등급 1.8kg : ₩212,000원 -</p>	<p>진안고원 홍삼한우 혼합세트 1+ 이상등급 1.8kg : ₩240,000원 -</p>	<p>진안고원 홍삼한우 사골 세트 4kg 이상 : ₩45,000원 -</p>
<p>능길원 차종합선물세트 면일차, 동판자꽃차, 마라골드 꽃차 : ₩42,000원</p>	<p>운장식품 생성들기름 180ml x 2병 : ₩35,000원</p>	<p>한시골 생강청 선물세트 650ml x 2병 : ₩80,000원</p>	<p>훈이네 한과 선물세트 40봉 x 1박스 : ₩20,000원</p>

진안로컬푸드 | 진안로컬푸드 호스팅 | 무료 배송

구입문의 진안로컬푸드 호스팅 **063-253-70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풍무대로 930
 로컬푸드 구입문의 09:00 - 17:00 진안군전자상거래유통사업단 "진안산"에서도 구입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50,000원 이상